

스페인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분석 및 전망

오태현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차 례 ●●●

1. 스페인 경제의 불확실성
2. 스페인 재정위기 요인 분석
3. 스페인 정부의 대응 및 전망

주요 내용 ●●●

- ▶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및 경기침체 진입으로 인해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스페인 경제가 2011년 4/4분기에 이어 2012년 1/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했으나, 현 상황에서 경기하락세를 전환시킬 만한 정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임.
 - 스페인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반영하듯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있으며, 이에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도 급등함.
- ▶ 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 건축예산안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및 금융권의 부실 우려 등이 제기됨.
 - 스페인 정부의 건축예산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인데, 특히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스페인 정부가 목표로 한 재정적자 감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7년까지 스페인 경제를 이끌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실업률 악화 및 관련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감축에 악재로 작용함.
 - 특히 금융권 부실여신이 최근 8%를 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의 60%(1,840억 유로)가 악성이거나 부실로 추정되고, 주택가격 추가하락에 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 스페인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재정, 노동시장,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요인이 재정위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단기적인 리스크 지속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부부채 규모가 스페인 정부의 위기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금융권의 부실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스페인 위기를 가중하고 있음.
 - 스페인의 건축목표 달성시한 1년 연장과 성장을 통한 재정위기 탈출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합의는 재정긴축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나,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으로 인해 그리스 위기가 스페인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임.

1. 스페인 경제의 불확실성

■ **(신용등급)**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스페인 및 스페인 내 16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함에 따라 향후 스페인 정부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2012년 1월 신용등급 강등(AA-→A) 이후 3개월 만인 4월 26일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두 단계 강등하고,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함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된다.
- S&P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악화 가능성, 스페인 경제가 침체에 돌입한 시점에 노동시장 개혁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함.
- 4월 30일에는 스페인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스페인 은행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S&P가 스페인 주요 16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함.
- 무디스도 지난 5월 10일 스페인의 주요 16개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며 스페인 금융권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를 반영함.

표 1. 유럽 주요국의 신용등급

	Moody's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독일	Aaa	안정	AAA	안정	AAA	안정
프랑스	Aaa	부정	AA+	부정	AAA	부정
이탈리아	A3	부정	BBB+	부정	A-	부정
스페인	A3	부정	BBB+	부정	A	부정

자료: Bloomberg.

표 2. 유럽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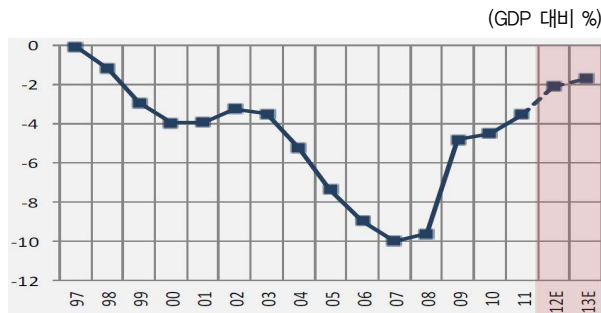
	' 11,1/4	' 11,2/4	' 11,3/4	' 11,4/4	' 12,1/4
EU	0.7	0.2	0.3	-0.3	0.0
유로지역	0.8	0.1	0.1	-0.3	0.0
독일	1.3	0.3	0.6	-0.2	0.5
프랑스	0.9	0.0	0.3	0.1	0.0
스페인	0.4	0.2	0.0	-0.3	-0.3
이탈리아	0.1	0.3	-0.2	-0.7	-0.8

자료: Eurostat.

■ **(스페인 실물경기)** 2011년 소폭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경제는 2011년 4/4분기에 이어 올해 1/4분기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침체에 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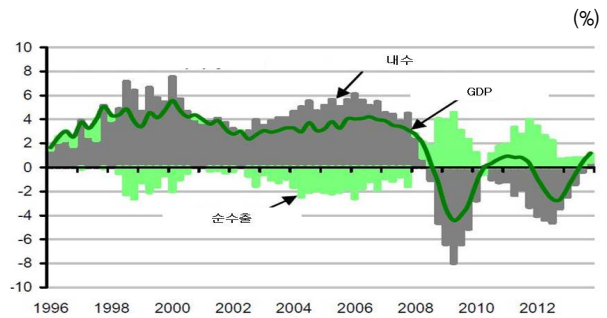
- 2011년 스페인 경제는 내수위축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증가와 관광산업 호조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그림 1 참고).
- 순수출 증가는 자동차 및 의약 분야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자동차의 경우 스페인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에서의 생산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그림 2 참고).
- 스페인의 관광산업은 세계 경기침체 동안 많은 타격을 입었으나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관광업이 순수출과 함께 스페인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함.
- 그러나 실업률 증가와 은행의 대출감소는 소득과 소비감소(내수위축)로 이어져 스페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그림 1. 스페인 경상수지



자료: 스페인 중앙은행.

그림 2. 스페인 부문별 성장률 기여



자료: UBS(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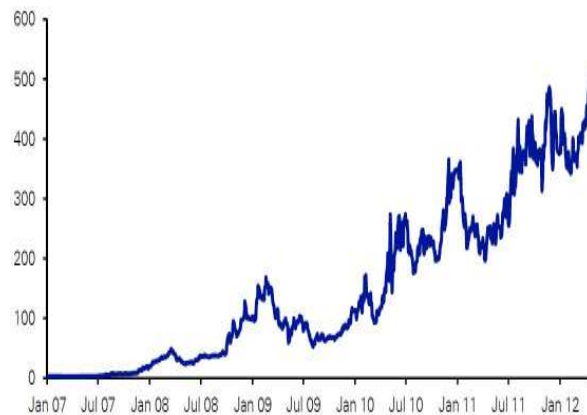
■ **(금융지표)** 최근 스페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CDS 프리미엄과 국채 스프레드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자본시장에서 스페인 정부의 자원조달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을 전후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4월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음.

○ 스페인의 CDS 프리미엄 추이: 480bp(12. 5. 4) → 484bp(12. 5. 7) → 517bp(12.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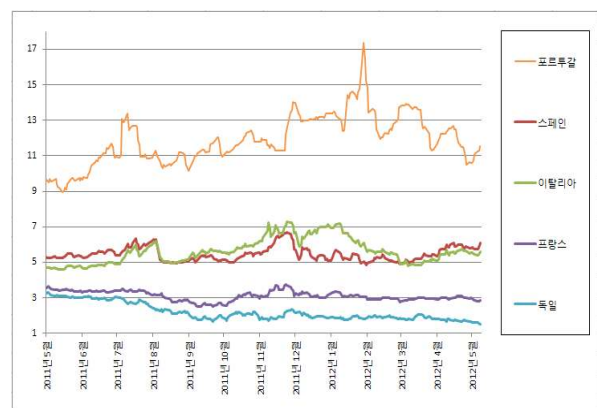
○ 스페인의 국채금리 추이: 5.6%(12. 1. 9) → 5.4%(12. 3. 30) → 6.1%(12. 5. 9)

그림 3. 스페인 CDS 프리미엄(5년물, bp)



자료: Deutsche Bank(2012).

그림 4. 유럽 주요국 국채금리(10년 만기, %)



자료: Bloomberg(2012).

- 신용등급 강등 및 경기위축 등 계속된 악재에도 불구하고, 5월 3일 스페인 정부는 목표치(25억 유로)를 상회하는 국채발행에 성공했으나 큰 폭으로 상승한 발행금리는 스페인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킴.

○ 3년물 국채 발행금리: 2.617% → 4.037%

○ 두 종류로 발행된 5년물 국채 발행금리: 2017년 1월 만기국채 3.565% → 4.752%

2017년 7월 만기국채 3.696% → 4.960%

2. 스페인 재정위기 요인 분석

가. 긴축예산안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 **(2012년 긴축예산안)** 스페인 정부가 총 270억 유로 규모(GDP의 2.5%)의 재정적자 감축내용을 담은 2012년 긴축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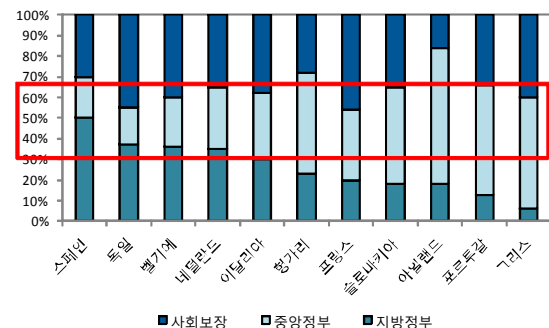
- 스페인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5.3%로 설정하였으나,¹⁾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불신이 강한 상황임(표 3 참고).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한시적 소득세 인상, 정부지출 16.9% 삭감, 공무원 임금 동결, 공공부문 부동산투자 19.6% 감축, 조세회피 감시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됨.
- 주요 기관들은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하며 2012년은 물론 2013년 GDP 대비 3%의 재정적자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표 3. 2012년 스페인 긴축예산안 재정적자 목표
(GDP 대비 %)

	'11년 목표	'11년 달성	'12년 목표 (수정 전)	'12년 목표 (수정 후)
중앙정부	4.8	5.1	3.2	3.5
지방정부	1.3	2.9	1.3	1.5
사회보장성 기금 등 기타	-0.1	0.5	-0.1	0.3
합계	6.0	8.5	4.4	5.3
GDP 성장률(%)	1.3	0.7	2.3	-1.7

자료: 스페인 재무부.

그림 5. 유럽 주요국 공공지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



자료: Deutsche Bank(2012).

■ **(지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중요)** 지방정부의 노력 없이는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시장의 우려를 고조시킴.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스페인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부터 발생하고 있음(표 3 참고).
- 스페인 전체 공공지출에서 17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는데(그림 5 참고), 지방정부의 지출은 주로 의료(26%)와 교육(19%)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고 있음.

1) 당초 스페인 정부는 EU에 약속한 2012년 재정적자 목표 4.3%를 깨고 EU 집행부와 상의 없이 5.8%를 제시하였으나,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EU 집행위 및 독일과 프랑스 등의 요구에 따라 5.3%로 조정함.

-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표출이 시장의 우려를 고조시킴.
- 스페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감축기준을 지키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회의적임.²⁾
 - 집권당인 국민당이 17개 지방정부 중 11개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가장 큰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카탈루냐와 안달루시아 두 지방정부를 집권당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함.
 - 안달루시아의 사회당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긴축 위주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기진작을 통한 고용창출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함.

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고(高)실업률 및 금융권 부실여신 급증

■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전까지 주택 및 건설 부문은 스페인 경제의 주요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함.

- 주택 및 건설 부문은 스페인 GDP의 16%, 전체 고용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관련 투자규모도 2006~07년 GDP의 13%에 이룸.
- 1997~2007년 사이 주택가격은 3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특히 2002~05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15%로 유로 지역 국가 중 가장 높았음.
- 스페인의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에 따른 실질 가치분소득의 증가, 높은 자가주거 선호경향 등에서 기인한 주택 수요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³⁾

■ (부동산 경기침체) 현재 고점 대비 약 27%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스페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UBS는 스페인의 주택가격이 정상가격 대비 50% 정도 과대 평가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25%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추정함(그림 6 참고).
-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하락은 부의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하여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것임.

2) 2011년 11월 스페인은 조기총선을 통해 당시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을 제치고 국민당(PP)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새로 정권을 차지함.

	의석수	
	2011년 총선결과	2008년 총선결과
국민당(PP)	186	154
사회노동당(PSOE)	110	169
카탈루냐연합당(CIU)	16	10
통합좌파(IU)	11	2
기타 소수정당	27	15

3) 오태현(2008), 「유럽 주택경기 하락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제08-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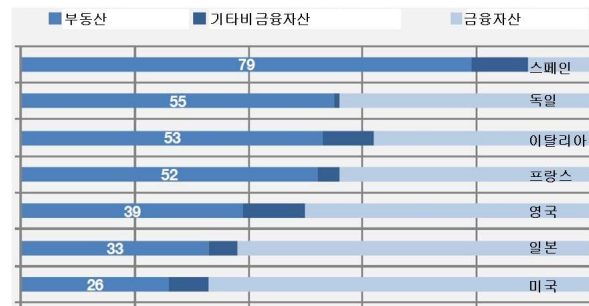
- 스페인의 경우 가계자산의 약 79%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유럽의 독일(55%), 이탈리아(53%), 프랑스(52%)에서보다 부동산 가격하락이 직접적으로 가계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그림 7 참고).

그림 6. 고점 대비 부동산가격 하락폭



자료 : UBS(2012).

그림 7. 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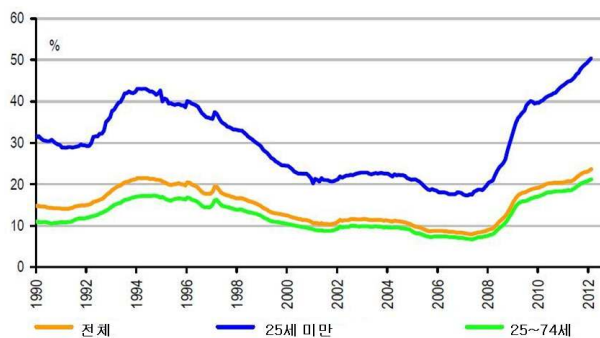


자료: 스페인 중앙은행.

■ (고실업률)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및 재정지출 제약으로 인한 스페인의 실업률 상승은 재정수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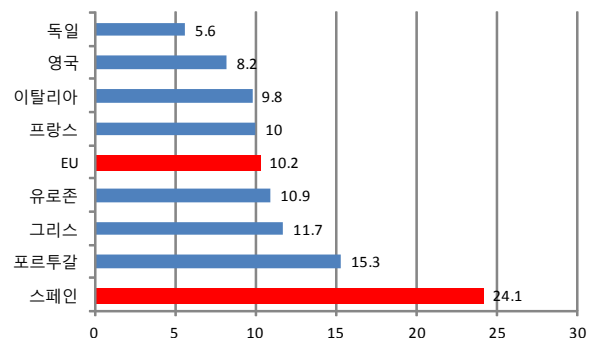
- 2012년 3월 스페인의 실업률은 24.1%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특히 2012년 1/4분기에 기록한 실업률 24.4%는 지난 18년래 최고 수준임(그림 8 참고).
- 높은 실업률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건설 및 관련 산업의 침체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저숙련 청년층이 건설 부문에서 대거 해고되면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함(청년층 실업률 51.1%).
-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증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률 악화는 '가계소득 감소 → 민간소비 위축 → 정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은행의 민간대출 감소 및 부동산 가격하락과 더불어 고실업률은 가계의 소비능력을 악화시켜 정부재정 수입감소 및 정부재정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당분간 경기침체 지속 및 해고비용 감소에 따라 고용증진보다는 추가적인 실업률 상승세가 지속되어 2012년과 2013년 중 실업률은 각각 24%와 2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8. 스페인 실업률 추이



자료: UBS(2012).

그림 9. 유럽 주요국 실업률



자료: Eurostat.

■ **(금융권 부실여신 급증)**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이 늘고 있으며, 구제금융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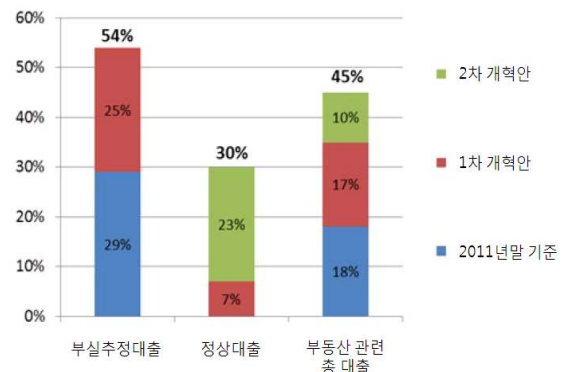
- **(은행 부실채권)** 2012년 3월 말 현재 스페인 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이 8.37%(1,479억 유로)로 증가하면서 1994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까지는 은행들의 부실여신 비율이 0%에 가까웠으나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2010년 4.4%, 2012년 3월 말 약 8.16%로 급증함.
 -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여신 비율이 1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Moody's는 스페인 은행의 부실규모를 최대 3,060억 유로로 추정하고, 연구기관인 CEPS는 3,800억 유로 규모로 추정함.
 -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총액은 3,070억 유로이며, 이 중 60%인 1,840억 유로가 악성이거나 부실로 추정되는데, 이 규모는 부동산 경기악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표 4 참고).
 -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급증에 대비해 정부가 은행들에 대손충당금 확충을 지시하고 있으나 시장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그림 10 참고).
- * 은행이 약 1,370억 유로의 대손충당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관련 총 대출의 약 45% 수준에 불과함.

표 4. 스페인 금융권 부동산 대출평가

(단위: 억 유로)

부실추정대출		정상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토지/진행중 개발사업	190	토지	250
		진행중 개발사업	160
기타 부동산	930	완료주택	600
		기타	210
합계 : 1,840억 유로		합계 : 1,23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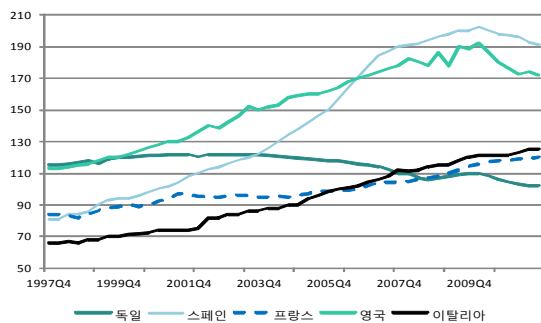
그림 10. 스페인의 금융권 부동산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비율



주: 1차 개략안(2012. 2)과 2차 개략안(2012. 5)을 통해 스페인 정부는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으로 각각 500억 유로와 300억 유로를 설정함.
자료: 스페인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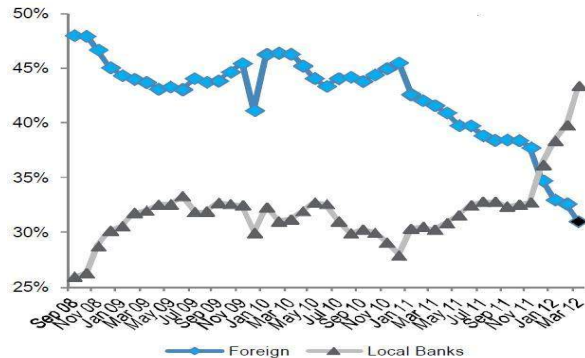
- **(높은 민간부채)** GDP의 193%에 이르는 민간(가계 및 비금융기관) 채무가 정부부채 리스크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그림 12 참고).
 - 정부가 민간은행을 인수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최소 GDP 5~9% 수준의 정부부채를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 스페인 저축은행 및 중소은행들은 여전히 자기자본을 확충할 여력이 없거나 부실자산 확대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11. 유럽 주요국 민간채무 규모(GDP 대비 %)



자료: EXANE BNP PARIBAS(2012).

그림 12. 스페인 국채의 국내은행 매입 비중



자료: JP Morgan CAZENOVE(2012).

■ 스페인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통해 유동성 확보 및 자국국채 매입을 늘려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완화시켰으나, 향후 재정위기로 인한 국채 부실화로 스페인 은행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음.

-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유럽중앙은행이 총 1조 유로 이상의 유동성을 유럽 은행에 공급했는데, 특히 스페인 은행들이 ECB로부터 차입한 규모는 2,276억 유로(2012년 3월 말 기준)에 이릅니다.
- 스페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국채매입을 늘리고 있어, 재정위기 악화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취약하게 될 것임(그림 12 참고).

3. 스페인 정부의 대응 및 전망

가. 스페인의 경제개혁 노력

■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노동시장 개혁, 은행권 구조조정 등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아직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한 상황임.

■ (은행권 구조조정) 저축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확산되자 스페인 정부는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확충하도록 지시함.

- 스페인 정부는 2009년부터 150억 유로 규모의 은행구조조정기금(FROB: Fund for the Orderly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Sector)을 조성하여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o 스페인 정부는 추가 자본을 확충할 수 없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FROB를 통한 자금을 지원하되 은행의 비핵심 자산 매각, 운용규모 축소 같은 구조조정을 요구함.

- 45개에 이르던 스페인의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해 7개로 감소함.
- 스페인 정부는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함.
- 1차 개혁안(2012. 2): 부동산 관련 대출부실에 대한 500억 유로(GDP의 2%)의 대손충당금 적립, 인수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증자 시한을 1년 연장
- 2차 개혁안(2012. 5): 30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신규 대손충당금 확충, 독립 회계법인 2곳을 지정해 부동산을 대차대조표에서 분리

■ **(지방정부 재정권한 통제)**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의무화하고 예산안정법을 통해 모든 정부기관들이 균형 및 흑자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함.

-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준수 의무를 강제하였으며, 예산안정법을 통해 모든 정부기관은 균형 및 흑자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이 높은 재량권과 허술한 감독에서 기인했다는 평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율 위반 시 중앙정부가 예산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시장 개혁안)**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던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과소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정규직 고용확대 정책을 추진함.

- 지난 2월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안이 단기간에 실업률 개선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나. 스페인 재정위기 전망

■ **(스페인 재정위기 전망)**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스페인 재정위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어느 한 요인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미래를 예단하기 어려움.

■ 대내적 요인으로 금융권의 부실여신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부채 규모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은 긍정적임.

- **(부정적 요인)** 스페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행권의 구조조정 및 부실여신에 대해 자본확충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실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스페인 은행의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 및 은행 구조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 및 기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좀더 적극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스페인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금융개혁안을 통해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이 45%(1,370억 유로)에 이르고 있으나 UBS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6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긍정적 요인)** 스페인의 정부부채 규모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물론 독일 프랑스보다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있다고 판단됨.

- 2011년 유로존 국가들의 정부부채 규모(GDP 대비 %): 스페인 → 68.5%, 프랑스 → 85.1%, 독일 → 88.9%, 그리스 → 165.1%, 유로존 → 90.4%

* 유럽 통계청은 2012년 스페인의 정부부채가 GDP 대비 7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대외적 요인으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1년 유예 받은 것과 최근 유럽이 성장기조로 선화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이
나, 그리스발 리스크는 스페인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음.

- (부정적 요인) 그리스 총선 이후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주변국, 특히 스페인
으로의 위기전이 가능성이 제기됨.
- 5월 6일 치러진 총선 결과 그리스가 연정 구성에 실패한 가운데 그리스 국민들의 ‘긴축반대 & 유로화 유지’ 라는
이중적인 태도는 그리스의 정치적 리스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 (긍정적 요인) 재정적자 감축시한 1년 유예 및 성장을 통한 재정위기 탈출 논의로 인해 재정긴축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EU 및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대해서는 긴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스페인에 대해서는 지나친
긴축에 따른 저성장 및 국민들의 심한 반발 등을 고려한 긴축목표의 부담완화라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취함.
- 5월 16일 독·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은 앞으로의 성장과 관련한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KIEP